

박명구 금호전기 대표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동반 성장보다 기술 퇴행과 시장 난립 등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초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당시는 조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을 비춰보면 오히려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보다 뒤처져있다. 글로벌 조명 기업들은 경쟁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집중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출혈 경

“중견기업, 조달시장 참여토록 규제 완화 필요”

쟁에 치우쳐 있는 등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중소기업이 독과점 양상을 띠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도 거대 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결국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 중견기업이 조달시장에 제한적으로 남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구매 실적이 필수인데 자국 공공기관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수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독과점을 억제하고 중견기업에게도 일부 비율을 할애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달시장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중기업 간의 균형성장을 유도하고 인건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드 배지 등으로 발생한 무역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인프라 강화 및 지원대책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에서만 치킨게임 하지 않고 넓은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김상복 두원전선 대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전선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건설과 조선 등 전방산업의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시장 왜곡, 불법·불량제품 문제 등 중소기업



“조합 공동사업 규제 보다 완화 필요”

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은 매우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되는 정책도 필요하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출혈 경쟁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된 상황에서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공동 생산이나 공동 판매 등을 통해 담핑판매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조기에 쓰러지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자칫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공영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원한다.

최전남 남성기전 대표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행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5000만원 이하로 규모가 작고 견수도 적어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 제도를 시행한지도 10여년 정도가 지났고 몰가도 상승했으니 금액을 올려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소액수의계약제도 현실화해 중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줘야”

다.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경우 계약 한도 금액이 설정돼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7억9000만원 미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억1000만원 미만 등으로 묶여 있다. 이중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경우 금액 한도 때문에 발주 물량은 많고도 공동상표를 활용하기 어렵다. 한도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공공기관, 수요기관에서 구매활성화가 돼야 한다.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청 업종공통기술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이를 이용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는 각 수요기관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합이 업체와 함께 계약이행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까지도 이행해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유신하 정인시스템 대표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중순 제19대 대선주자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강연을 갖고 한 목소리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전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에 와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살펴보면 막연한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고, 자금지원과 판로를 확대해 주는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장을 리를 대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이 나 소공인 영역까지 침범하



“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 맞춰주길 기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을 더욱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새정부가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은 규모에 맞는 아이টে임을 하고, 중소기업은 안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토대를 만들수 있도록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인력양성, 수출확대가 가능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강한 선진국처럼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과 인력을 보호해주

도록 방지하거나 위탁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술·인력 등을 수탁기업이 빼가는 불공정행위를 간과한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경제의 한 주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야 하는 책무가 있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과 견디는 시장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숙제를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일 솔라루체 대표



우선 정부에서 조명 업체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조명업계 생태계 계속 간다면 단 한 곳도 살아남을 수 없다. 불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경영활동을 중단해야할 정도의 사후 관리 제도 강화가 급선무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상황을 체감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에 고급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연결 선상에서 처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강력한 사후관리 제도 만들어 불법·불량제품 차단해야”

법·불량 제품 차단과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조명 업체들이 불법·불량제품을 쏟아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제품을 발표할 때 조명은 항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사후관리 제도를 만들어 불법·불량제품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규제하기 위한 규제일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과 복지, R&D 등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조 기반을 유턴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도 내수를 살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업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Khan Lighting. Features logos for KS, Good Design, and various certifications. Text includes 'KS 제품인증서, 안전인증,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등 인증서 다수보유' and '보다 밝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주)칸라이팅이 되겠습니다.' The background shows a modern interior with recessed lighting fixtures.